

## 호남 민심 잡기 ‘野전혈투’



가까이 하기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27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부활절예배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 선택 4·13 D-16

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호남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지난 26일과 2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27일 광주시 서구 DJ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 살리기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4·13 총선이 끝나면 더민주가 옛날과 같은 패권주의 정당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다”며 “비대위 대표로서 그런 상황이 절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김종인 더민주 대표 “패권주의 정당 회귀 않도록 최선”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호남 28석 전체 석권이 목표”  
총선 목표는 새누리 150·더민주 130·국민의당 40석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여기서 초·중학교를 졸업했고, 뿌리가 있는 사람이며 호남인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소망을 더민주와 제가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4·13 총선에서 ‘새싹’(더민주 후보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 국회로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문재인 대

인 비슷하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대리인 노릇을 하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전남 순천대에서 열린 ‘더불어 경제 콘서트’에서 “호남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특정인의 욕망에 편승하면서 마치 새로운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국민의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에 맞서 지난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더민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만 전하에 밝혀졌다”며 “(더민주가) 잘 장황했지만 총선이 지나면 다시 정체가 드러나고 정권교체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27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호남 행보와 관련, “국보위 출신수장이 지휘하는 더

민주야당의 정체성과 거리가 멀다”며 “국민의당이 호남 28석 전체를 석권하는 것도 허황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보위 이래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호남 소외에 말 한마디 했는가를 생각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김종인 대표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신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필수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가 당을 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 재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이상을 확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20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최대 4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도 20% 이상 얻겠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5.4대 1·전남 5.2대 1

95명 후보등록 전국 최고 경쟁률... 전국 평균 3.73대 1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시·도가 분리된 뒤 치러진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7일 광주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 8개 선거구에 43명, 전남 10개 선거구에 52명 후보가 등록했다.

경쟁률은 각각 5.4대 1과 5.2대 1이었다. 광주시가 전남도에서 분리돼 처음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 역대 총선 경쟁률은 ▲13대 3.6대 1 ▲14~15대 4.5대 1 ▲16대 4.3대 1 ▲17대 4.9대 1 ▲18대 4.8대 1 ▲19대 4.1대 1 등이었다.

전남 역시 13대 이후 기준으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18대(4.5대 1)보다 높았다.

이처럼 경쟁률이 역대 선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야권 분열로 인해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경쟁구도가 다원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더민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도 두루 후보를 내면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구별로는 광주 동남갑, 서구를, 북구를, 광산갑과 광산을 등 5개 선거구에 6명씩 출마했다. 서갑은 5대 1, 동남을과 북갑은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지역구인 목포에서 무소속 3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8명이 도전했다. 나주·화순은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만 1명씩 출마해 대조를 이뤘다.

정당별로는 더민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이 광주 전 선거구에, 새누리당은 북갑을 제외한 7곳에 후보를 냈다. 정의당 4명, 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이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중출마를 단행한 강운태(동남갑) 전 광주시장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에 944명의 후보가 등록해 3.73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이번 총선에는 모두 25개 정당이 참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경쟁률은 ▲2004년 17대 총선 4.84대 1 ▲2008년 18대 총선 4.57대 1 ▲2012년 19대 총선 3.67대 1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엔 약간 올라갔다.

## 광주 5억9557만원·전남 10억8348만원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윤장현 시장 9억7600만원

이낙연 지사 14억6802만원

광주·전남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액은 각각 5억9557만원, 10억83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비 8143만원, 1억 553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광주에서는 47명(66%), 전남에서는 66명(78.6%)의 공직자가 재산을 불리는데 성공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윤장현 시장은 2억1000만원대 토지와 4억7000만원대 아파트, 6억2000만원대의 본인과 배우자 예금을 신고했다. 총액은 9억7600만원이다. 14억원이 넘었던 빛은 병원건물을 팔아 3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이낙연 전남 지사의 재산은 14억6802만원으로 전년도 9176만원이 감소했다. 자동차 가격 하락과 배우자 주식 감소 등이 그 원인이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년도보다 5578만원이 증가한 9억9005만1000원,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년도보다 3억 3257만원이 증가한 62억1502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임순애 남구의원원과 임명규 전남도의원으로, 각각 34억5398만원과 77억253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 구청장 중에서는 임우진 서구청장이 최고 재력가로 예금과 건물, 유가증권 등 26억6700만원을 신고했다. 임 청장은 배우자 예금 19억7000여만원, 본인 5200만원 등 예금만 무려 21억6600만원에 달했다. 전남 시장·군수 중에서는 김철주 무안군수가 1년동안 9억722만원의 재산을 불려 47억6497만원을 신고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올해 신고한 재산이 6억1382만원으로 지난해 5억2927만원보다 8455만원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올해 5억6358만원으로, 지난해 5억 4266만원보다 2092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윤영기·윤현석 기자 penfoot@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전남 20대 총선 후보 ▶5면  
동구청장 후보 전국 후보자 ▶6면  
광주 고려인마을 특화거리 조성 ▶7면  
문화원류-브랏트 문화의 뿌리 ▶18면

The New C-Class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20d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시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2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26g/km